

1980년 5월 광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5·18재단 UCLA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 1차 분석 북미·일본·유럽 인권단체, 참상 초기부터 국제사회 알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내에서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돕기 위해 해외 인권단체들이 국가를 초월해 연대활동을 펼쳤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5·18기념재단은 미국 UCLA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 Library)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분석한 1차 보고서 '북미지역 인권단체의 광주항쟁 연대활동과 그 영향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 해외자료 수집·분석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재단이 UCLA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발굴, 확보한 5·18 관련 자료 6300건 중 일부를 최우준 재단 비

상연연구원이 번역·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일본, 유럽 인권단체들은 '초국적 후원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TAN)를 구축해 광주항쟁을 국외에서 후원하는 등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일본, 북미, 유럽 인권단체들로 5·18 초기부터 진상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각종 보고서와 뉴스레터 등으로 광주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가장 빠른 것은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인권단체(Church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Asia)가 1980년 5월 20일자로 발행한 'Korea: Action Alert'이다. 이 소식지에는 5월 18일 비상

계엄 전국 확대에 따른 예비검속자 명단과 함께 광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예비검속자 명단이 구체적이고 이 단체 운영자가 '월요모임'(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1970년대 결성한 모임) 출신인 점을 들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상황을 전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5월 23일 계엄군의 만행과 광주 항쟁 정신을 영어 편지로 작성해 외국 특파원에게 전달했다. 이 편지는 일본 방송사 NHK가 5월 26일자로 보도했고 일본의 시사잡지 '세카이'는 "한국의 소녀가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며 화제가 됐다.

항쟁이 끝난 직후 외국 인권단체들이 기초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친 사실도 확인됐다. 1980년 6월 22~28일 미국인 의사

2명(Glenn M. Gordon, Young Song Kim)이 광주를 방문해 자체 조사를 벌인 후 8쪽 분량 'Fact-Finding Mission on Kwangju, Korea'를 작성했다. 이들은 시신 내부에 총알 파편이 퍼져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엄군이 일반 탄알보다 치명적인 연성탄(soft bullets)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같은해 7월에는 퀘이커교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두 명이 광주와 서울을 방문해 8쪽 분량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광주의 암울한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항쟁 구속자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 북미지역 인권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이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 수립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 해질 19:13 | 달뜨기 14:18 | 달지기 03:04

봄비 그치고 낮 포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2/22
목포	맑음	11/17
여수	맑음	12/18
나주	맑음	11/21
완도	구름많음	12/19
구례	맑음	10/22
강진	맑음	11/19
해남	구름많음	12/18
장성	맑음	9/21
보성	맑음	11/18
순천	맑음	12/20
영광	맑음	9/18
진도	구름많음	11/17
진주	맑음	9/21
군산	맑음	8/20
남원	맑음	10/21
홍산도	구름많음	10/15

지역	파고(m)	해상상태
서해안	북서~북 0.5~1.5	보통
남해안	북~북동 1.5~2.5	보통
남해안(동)	북~북동 0.5~1.5	보통
남해안(서)	북동~동 2.0~3.0	보통

지수	상태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목적	간조	만조
목포	03:00	10:24
	16:06	22:54
여수	12:02	05:38
	--:--	18:17

날짜	날씨
26(목)	10/21
27(금)	11/21
28(토)	10/24
29(일)	12/25
30(월)	12/24
5/1(화)	13/23
2(수)	13/24

'사학 자유 국민 청원' 교직원 동원 논란

광주사학법인협, 설명회에 각 학교 인원 할당... 교사들 반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광주시법인협의(광주사학법인협의회)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국민청원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교직원 동원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사학법인협의회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사학의 설립·운영의 자유 헌법 명시 국민청원'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사학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 법인에 공문을 보내 단설학교 30명, 중·고 병설학교는 50명 이상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서명 인원도 단설학교 100명, 병설학교는 200명 이상으로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설명회가 근무시간에 열리는 행사여서 교직원 동원 논란과 함께 학교 수업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무회의에서 청원서명을 강제하는가 하면 학부모 통신을 통해 서명을 독려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학재단들은 사학의 자유 헌법 명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정 전입금납부 등 책임부터 성실히 이행하라"며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동위탁제 등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학비리 적폐부터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광주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헌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사학은 이러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26일 행사의 경우 자리 배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 인원을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낸 것이 강제 동원인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시각장애인 모의투표 체험 24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시장애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모의투표체험'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전자용 투표표조종구에 끼워진 투표용지를 보고 각급 선거와 후보자 기호를 식별해 투표하게 된다. /최혜배기자 choi@

암 검진·사망률도 '부익부 빈익빈'

보사연 보고서...5대 암 소득·학력 수준 비례

암 검진율과 사망률이 소득·교육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5대암(유방암·자궁경부암·위암·대장암·간암) 검진율은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았다.

소득수준(상·중상·중·중하·하)별 검진율 격차가 뚜렷한 암은 위암이었다. 40세 이상의 검진율은 소득 '상'에서 65.3%로 가장 높았고, 소득 '하'에서 47.2%

로 가장 낮아 18.1%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간암도 격차가 컸다. 소득 '상'(36.9%)과 '하'(22.4%)의 차이는 14.5%포인트였다. 교육수준별 검진율 격차가 눈에 띄는 암은 유방암으로, 40세 이상 인구에서 '전문대졸 이상'(69.5%)과 '초졸 이하'(56.3%)의 검진율 차이는 13.2%포인트였다.

암 사망률도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5년 30~64세 암 사망률은 '초졸 이하 집단'에서 인구 10만 명당 185.1명을 기록했다. '중·고졸'에서는 73.3명,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57.0명에 그쳤다. /김현영기자 young@

호남고속철 내부 고발자에 3억원 보상금

역대 최고...권익위 "공익 신고로 34억원 과징금·벌금 부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자 1명에게 역대 최고 금액의 공익신고 보상금인 3억153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 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 공사담합 신고자인 A씨에게 최고액이 지급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 우는 보상금을 준다.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총 3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과징금·벌금 등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20%, 1억원 초과일 때는 금액 구간별로 4~14%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용희기자 kimyh@

멋과 맛, 문화예술이 숨쉬는 곳,
목포에서 힐링하십시오.

대표이사	경 이 상 선	대표이사	박 병 규	(주)천 이 건 설	직원 일 동	한국외국관광협회 목포시지부	직원 일 동	한국외국관광협회 전남지회	직원 일 동	회 장	김 호 남	근 화 건 설 (주)	조 경 구	가 산 토 건 (주)	직원 일 동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직원 일 동	신안관광비치호텔(주)	직원 일 동	대표이사·회장	이 혁 영 외	씨월드고속훼리(주)	직원 일 동	목포교육지원청	직원 일 동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직원 일 동	목 포 시 시 장 청	직원 일 동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